

광주·전남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갈길 멀다'

'휠체어 수리' 정부지원 업체 6곳 뿐...접수 밀려 수리 지연 사설업체는 2~3배 비싸 엄두 못내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하반신 마비로 전동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한 김재현(34·광주)씨는 최근 8일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인 전동휠체어의 타이어가 펑크났기 때문이다. 수리를 위해 장애인 보장수리 시설에 요청했지만, 수리가 밀려있는 탓에 기사는 8일 후에야 방문해 수리를 마쳤다. 김씨는 "8일 동안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생활을 하게 됐다"면서 "나 같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다리와 같은데 당장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보조기기센터에 따르면 광주에 장애인 보장구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수리할 수 있는 곳은 '광주지체장애인협회' 단 한 곳 뿐이다. 전동휠체어가 고장이나면 장애인들은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수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소지 지자체에 신고해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이 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광주·전남지역 장애인들은 김씨와 같이 전동휠체어가 고장나면 제때 수리를 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광주에 단 한곳 뿐인데 수리신청 접수가 늘고 있어 수리

전동휠체어 타이어 교체에는 8000원, 발판 수리 1만원, 라이트 교체 5만원, 전동 휠체어 배터리 10만원 선에 수리할 수 있다. 여기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년간 20만원의 수리비가 면제되고, 기타 장애인은 1년에 10만원 한도까지 자부담금 50%를 면제받는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사설업체를 통해 수리를 하는 것이다. 사설업체는 당일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부담이다. 정부지원금은 전혀 없고, 수리비용은 2~3배가 비싸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들의 수리 요청은 광주에 한곳 뿐인 광주지체장애인협회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설명이다. 광주지체장애인협회에 접수되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는 1406건(2019년)→1458건(2020년)→1639건(2021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2명으로 상담 및 수리, 행정업무까지 모두 하는 탓에 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직원 한명이 1년에 800건이 넘는 전동휠체어를 수리하고 있는 꼴이다.

타 광역시의 경우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업체가 대구 2곳, 부산 4곳, 대전 2곳 등이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제주에도 3개 업체가 있고 심지어 경기도에는 67개 업체가 있어 광주·전남과는 확연히 비교된다. 전남에서는 순천과 해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순천과 해남에는 4개 업체가 있지만, 나머지 19개 시군에서는 무안에 있는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한 곳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67개 업체가 경기도 전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점을 포함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연대는 "광주시가 저상버스를 얼마나 도입할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지 묵묵부답이다"면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예산을 편성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발언을 하기로 한 활동가도 '새빛콜'(장애인 콜벤)이 잡히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새빛콜의 시스템 오류, 배차 지연 문제해결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광주 동구 어린이공원 신설 내남동 지한초 일대 11월 준공

광주시 동구에 2000여㎡ 부지의 어린이공원이 신설된다. 광주시 동구는 내남동 지한초등학교와 지한유치원 일대 2113㎡ 부지에 '남계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성공사는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공원에는 놀이터, 바구니 그네, 조형 놀이대 등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물과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시설물, 황톳길 산책 코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피코닉 테이بل, 테이بل 벤치 등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남계 어린이공원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민 누구나 쉴 수 있는 소동과 어울림의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먼지 날리는 김치축제장 20일 광주시 남구 입암동 광주김치타운에 마련된 제29회 광주세계김치축제 임시주차장이 흙먼지가 심하게 날리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장마' 용어 사라질까

기간 경계 모호... '여름철 폭우' 등 재규정 본격화

여름철 '장마'가 기후 변화로 과거와 달라진 만큼 새로운 명칭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마는 '연중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때'를 뜻하나, 최근 장마철과 장마철 이후 비가 내리는 기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장은 기상청이 20일 광주시 서구 마북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상학회 특별분과 학술대회에서 나왔다. 정용승 고려대기후환경연구소장은 '기후 온난화와 우기의 장마 특성 변화' 주제발표에서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대기 중 수증기가 변화, 기온과 폭우가 극심해지는 식으로 강수 형태가 변했다"며 "장마 또한 소나기와 국지적 폭우가 잦은 형태로 변한만큼 장마 표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공개된 기상청 '장마백서 2022'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장마철과 그 이후 강수 구간의 경

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6월 초순 건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으며 여름철 강수 시작 및 종료 시점이 조금씩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1차 우기'가 진행되고, 8월 초 다시 강수량이 늘면서 1차 우기 못지 않게 많은 비가 내리는 '2차 우기'(가을장마)가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장마철보다 장마가 끝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경향도 나타났다. 기상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 여름 전체 강수량 중 장마철 강수량이 42.2%에 그쳤으며 장마철 이후 강수량은 49.8%에 달했다. 정 소장은 "장마 표현을 '우기(雨期)' 또는 '다우기(多雨期)', '장우(長雨)', '여름 소나기', '소나기 계절', '여름철 폭우' 등 표현으로 대체하고 장마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방직 여성 노동자 일상, 체조 퍼포먼스로 재탄생

광주여성민우회 '말, 살, 흙의 연결' 25일 시민회관서 공개

전남·일신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기상부터 작업, 외출, 취침까지 하루 일과가 체조 퍼포먼스로 재탄생했다. 광주여성민우회와 창작그룹 MOIZ는 오는 25일 광주시민회관 야외공연장에서 방직공장 노동자들의 삶을 녹여낸 체조 퍼포먼스 '말, 살, 흙의 연결'을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체조는 총 5분 분량으로 4개 섹션, 16개 동작으

로 구성됐다. 각 섹션에서는 기상 방송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 기지개를 펴고, 작업복을 다려입은 뒤 공장으로 출근해 혼다·정방·직포 등 공정을 하는 동작을 체조로 표현했다. 이 중 혼타는 원면(原綿)에서 면 섬유를 풀어내는 공정이며 정방은 실을 꼬아 원하는 굵기의 실을 만드는 작업, 직포는 기계 사이를 돌아다니며 직조가 잘못된 곳을 찾는 과정이다.

체조 안무를 기획·제작한 MOIZ는 "방직공장의 노동이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성장의 역사이자 뿌듯한 기억일 것이므로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로 제작했다"며 "신체 동작의 고증을 위해 노력했으며 따라하기 쉽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체조로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25일 광주시민회관에서는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생애구술집 '뽕을 녹여 소금꽃을 피웠다' 출간을 기념해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 생애구술 집담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가정 밖 청소년 3000여명 '갈 곳 없다'

쉼터 정원 고작 35명...다양한 주거 지원책 마련돼야

광주 가정 밖 청소년이 3000여명에 달하지만, 쉼터 정원은 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청소년 쉼터는 총 5개소로, 정원이 35명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청소년 쉼터 현원은 31명으로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은 시설 4개소·정원 40명으로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정원이 적었으며 현재 41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어 이미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이와 관련 "집을 나온 청소년에게 위기 임시 주거, 과도기적 주거, 독립주거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지점, 각학지점